

별게 다있네...

글 조보희 기자

경매시장 진풍경

우람한 통나무들이 가지런히 도열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. 잘생긴 아랍말과 사냥매가 매끈한 몸매를 자랑하고, 멸종된 고생대 공룡과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화석이 눈 앞에 펼쳐진다. 평소 구경하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되는 지구촌 곳곳의 경매시장을 소개한다.



독일 니더작센주의 한 야적장에서 통나무들이 온라인 경매를 앞두고 나란히 진열돼 있다.
[DPA=연합뉴스]



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한 생선 도매시장에서
오징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.
[교도=연합뉴스]

폴란드 아노프 포들라스키에서 열린 '아랍 말의 날' 행사에서
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페루 남부 푸노에서 열리는 라마 축제에 참가한 원주민이
라마를 선보이고 있다.
[AFP=연합뉴스]





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경매에 나온 매. 올해 행사에서 매 한 마리가 최고 약 47만달러에 낙찰돼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.

[신화=연합뉴스]



영국의 한 경매회사 직원이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에 서식한 해양 파충류 티로사우루스(Tylosaurus)의 화석을 선보이고 있다.

[PA Wire=연합뉴스]



쿠웨이트시의 한 어시장에서 생선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.

[AFP=연합뉴스]



터키 이스탄불에서 꽃 경매가 열리고 있다. 터키는 2020년 1억700만달러의 꽃을 수출했다.
[신화=연합뉴스]



영국의 한 경매에 나온 고생대 대형 물고기 실러캔스(Coelacanth)의 화석
[PA Wire=연합뉴스]



프랑스 파리에서 경매에 부쳐질 6천600만 년 전의 공룡인 트리케라톱스(Triceratops)의 뼈대 화석이 공개되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



네덜란드 꽃 경매 시장. 네덜란드 화훼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[EPA=연합뉴스]